

hanguoyuyuedu

韩国语 阅读

上册



越秀外国语学院韩国文化研究所

● 主编 刘银钟



 延边大学出版社

H359.4

5

:1

2006

越秀外国语学院韩国文化研究所

韩国语阅读

(上)

主 编 刘银钟

副主编 金德模

尹顺玉

金成淑

延边大学出版社

图书在版编目 (CIP) 数据

韩国语阅读. 上册/刘银钟主编. —延吉: 延边大学出版社, 2006. 8

ISBN 7 - 5634 - 2259 - 5

I. 韩… II. 刘… III. 韩国语 - 阅读教学 - 高等学校 - 教材 IV. H559.4

中国版本图书馆 CIP 数据核字 (2006) 第 089734 号

韩国语阅读 (上册)

主编: 刘银钟

责任编辑: 林善玉

封面设计: 金胜铉

出版发行: 延边大学出版社

社址: 吉林省延吉市公园路 977 号 邮编: 133002

网址: <http://www.eabook.com> (东亚书城)

E-mail: eabook@eabook.com; eabook@hotmail.com

传真: 0433 - 2732434

印刷: 九台市胶印厂

开本: 787 × 1092 毫米 1/16

印张: 18.125 字数: 322 千字

印数: 1 - 2000 册

版次: 2006 年 8 月第 1 版

印次: 2006 年 8 月第 1 次

ISBN 7 - 5634 - 2259 - 5/H · 480

定价: 32.00 元

编 委 会

主 任：杨银千

委 员：杨银千 鲁世杰

徐左平 刘银钟

越海峰

顾 问：朴甲洙（韩国首尔大学教授）

朴鍾聲（韩国越秀国际留学院院长）

前 言

越秀《韩国语阅读》是为学习韩国语的读者提供韩国语精读课外学习资料和韩国语阅读教材而编写的。本书分为上、下册。上册为韩国人物传记，均选自韩国语版传记韩国文学名著；下册为世界人物传记，大都选自韩国语版传记世界文学名著，有一部分选自中文版传记文学作品，译成韩国语后经专家审定选编的。

本书每篇由原文、词语表、译文三部分组成。译文力求忠实于原文，通顺流畅，便于读者理解和领会原文。词语表将读者不易理解的词语（或词组）用汉语译注，以便学习者掌握更多的词汇。

本书力求通过大量阅读，使学生正确地理解和运用韩国语，丰富和积累词汇量，加强语言修养，提高学习者的韩国语实际运用能力。选文力求开拓学习者的视野，使读者阅读时了解韩国的风土人情、民俗民风、历史人物和事件。越秀《韩国语阅读》将成为读者的好朋友，课文中的伟人和成功者的范例将给读者以新的人生启迪。

本书在选编时，回避敏感性的语篇和语句。有些题目与节选内容不相符时，另标题目，并在原文后边加以注明。词语表所选词语在课文里有引申义时，则只进行引申义的翻译或解释；允许各课词语表中适当出现相同词语；标注词性只限韩国语；动词不具体分自动词、他动词。

本书适用于中级以上韩国语水平的学生和读者。它既可以用做课内阅读教材，也可以用做课外读物。

越秀《韩国语阅读》作为越秀外国语学院韩国语教学改革的一次尝试，由于缺乏经验，加上时间仓促，难免存在错漏之处，敬请同仁、专家、读者批评指正。

编 者

2006年8月8日

차 례

제1과	자랑스런 우리글 훈민정음	송명호 / 1
제2과	거북선의 눈부신 활약	이성관 / 9
제3과	나라와 겨레의 햇불	이성관 / 19
제4과	꼬마 시인	권오훈 / 30
제5과	겨레의 햇불	권오훈 / 40
제6과	금강산전투	이상현 / 51
제7과	하얼빈의 총 소리	이상현 / 63
제8과	교육에 뜻을 두다	이희철 / 75
제9과	광복의 그 날까지	이희철 / 83
제10과	나의 사랑 한반도	이진호 / 91
제11과	나라 잃은 슬픔	이진호 / 101
제12과	홍사단	이진호 / 106
제13과	혁명의 햇불	서재균 / 115
제14과	새야 새야 파랑새야	서재균 / 126
제15과	꼬마 화가	권석순 / 135
제16과	현모 양처	권석순 / 142
제17과	나도 밤나무다	권석순 / 155
제18과	배재 학당의 학생이 되다	김신철 / 164
제19과	두루때글 주 보통이	김신철 / 171
제20과	오직 한 길	김신철 / 179
제21과	신라의 두 기둥	배용길 / 191
제22과	임금이 될 꿈풀이	허호석 / 198

제23과	황산 대첩	허호석 / 205
제24과	새 나라를 세우다	허호석 / 214
제25과	글씨 장수	박경종 / 224
제26과	과연 명필이로다	박경종 / 237
제27과	서법 잔치를 벌리다	박경종 / 242
제28과	대동여지도를 만든 뜻	이형호 / 250
제29과	발로 누빈 금수 강산	이영호 / 255
제30과	처음 짜낸 무명 천	박택종 / 264
제31과	활자의 개량	구성호 / 272
제32과	세계 최초의 측우기	구성호 / 276

제1과 자랑스런 우리글 훈민정음

송 명 호

옛날 나라에는 우리말을 제대로 적을 수 있는 글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웃 나라인 중국의 한자를 빌려다 썼습니다. 그러나 한자는 글자 수가 많은 데다 글자들이 너무 복잡합니다. 따라서 쓰기에도 까다롭고 뜻풀이도 힘들어서 생활하는데 여간 불편하지 않았습니까.

“아이고, 어려워라! 1년을 꼬박 배워도 글자를 몇 개밖에 익히지 못하니, 원.”

“그러게 한자는 벼슬하는 사람, 또 학자들이며 양반집 도령이나 읽고 쓰는 글자라니까. 우리 같은 평민한테는 맞지 않아. 그림의 떡이라니까.”

백성들은 한결같이 이렇게 불평했습니다.

백성들 중에는 평생 동안 글자를 읽거나 써 보지도 못한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기 이름조차 쓸 줄 모르는 사람이 수도룩했습니다.

‘내가 한번 쉽게 글을 읽는 방법을 연구해 봐야겠다.’

신라 때의 설총이라는 학자가 연구하여, 이두라는 글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다지 훌륭한 글이 못 되어 널리 퍼지지 않았습니다.

이두는 한자의 음과 훈을 빌려다가, 우리말의 발음을 적게 한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실제로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세종 대왕은 어려운 한자나 이두로써는 백성을 잘 가르칠 수가 없음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말을 할 줄 아는 백성이 두루 쓸 수 있는 글자가 없다니, 이건 눈 뜬 장님이나 마찬가지다. 얼마나 불편하고 또 부끄러운 일인가? 모든 백성이 쉽게 쓸 수 있는 나랏글을 만들어야겠다.’

대왕은 자나 깨나 이런 생각을 하였습니다.

대왕은 집현전 학사들에게 나랏글을 연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직접 연구에 착수했습니다.

학사들은 《몽고운략》, 《홍무정운》 등의 책을 구해 조사했습니다. 이 책들은 중국의 학자들이 소리에 관해 연구한 내용을 적은 것입니다.

“중국의 한자는 뜻을 적어 나타내는 표의 문자이기 때문에 어렵고 그러니까 우리 나랏글은 소리를 주로 나타내는 표음 문자로 만들어야겠소.”

세종 대왕의 말을 들은 학사들은 모두 놀랐습니다. 그들이 미처 깨닫지 못했던 훌륭한 생각이었던 것입니다.

대왕은 경복궁 안에 나랏글을 연구하는 관청인 ‘정음국’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정인지·성삼문·신숙주·박팽년·최항·이개·이선로 등의 학사들로 하여금 연구에 힘쓰게 했습니다.

세종 대왕은 학사들과 머리를 맞대고 나랏글 연구에 온 힘을 기울였습니다.

“새로 나온 글자는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글자여야 한다. 다른 나라 글자를 흉내내지 말고 아주 독창적이어야 한다. 그리고 쉽게 읽고 쓸 수 있어서 백성들이 배우기 편해야 한다.”

대왕의 꿈은 크고 새로웠습니다. 이 뜻을 받들어 학사들도 열성을 다했습니다.

집현전 학사들은 중국의 한자는 물론 인도·몽고·거란의 글자까지 조사를 하였습니다. 성삼문은 중국의 한자와 비교하여 잘못된 것을 바로잡기 위하여 중국 라오둥에 열세 번이나 갔다 왔습니다.

세종 대왕은 집현전 학사들과 함께 지내면서 너무 애를 쓰다가 눈병까지 앓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끼니도 거르면서 연구를 게을리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최만리를 비롯한 몇몇 학사들은,

“한자가 있는데 무엇 때문에 새로 글자를 만든다고 시간과 돈을 낭비합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새 글자를 만든다는 소문이 명나라에 알려지면 불행한 일이 생길지도 모릅니다.”

하고 반대를 하였습니다. 예로부터 중국 대륙의 큰 나라를 섬기는 좋지 못

한 버릇 때문이었습니다.

“그런 말을 하지 마오! 우리 백성이 우리글을 가지겠다는데 남의 나라인 명나라의 눈치를 볼 까닭이 뭐 있소?”

세종 대왕은 최만리 등을 크게 꾸짖었습니다. 대왕의 결심은 나날이 더 굳어져 갔습니다.

‘내 기어이 우리글을 만들어 내고야 말리라.’

세종 대왕과 집현전 학사들은 피땀 어린 연구를 거듭했습니다. 달이 가고 해가 바뀌었습니다.

드디어 1443년 세종 25년 12월, 훈민정음 28자가 탄생하였습니다.

닿소리(자음) 17자(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ㅋ ㆁ ㆊ ㆋ ㆌ ㆍ ㆎ), 홀소리(모음) 11자(ㅏ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ㅡ ㅣ ㅚ ㅟ)의 28자였습니다.

대왕은 새로 태어난 나랏글을 ‘훈민정음’이라 이름지었습니다.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라는 뜻입니다.

오늘날 부르는 ‘한글’이라는 이름은 근래에 붙여진 것입니다. 갑오 경장 이후 주시경 선생에 의해 생겨나 널리 퍼지게 되었습니다.

한글의 ‘한’에는 ‘크고 으뜸 가며 바르다’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글과 훈민정음은 같은 뜻입니다.

‘당장 백성들에게 발표하지 말고 여러 가지 시험을 거쳐서 고칠 점이 있으면 더 고쳐서 발표하자.’

이렇게 생각한 세종 대왕은 3년이나 시험을 하였습니다. 그러고는 1446년 음력 9월 상순에 훈민정음을 발표하였습니다.

세종 대왕은 나랏글인 훈민정음을 세상에 퍼면서 다음과 같은 말을 책머리에 썼습니다.

우리나라의 말이 중국과 달라서 중국의 글자인 한자로써는 서로의 뜻을 통할 수가 없다. 그리하여 한자를 배우지 못한 백성들은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말을 적는 글이 없으므로 그 뜻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 나는 이것을 안타깝게 여겨 새로 스물여덟 자를 만들었으니, 사람마다 쉽게 익혀 생활에 도움이 되기 바란다.

우리의 이 훌륭한 글자를 옛날의 어떤 어리석은 선비들이 ‘언문’이니 ‘암클’이니 하며 업신여긴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중국의 한자만 ‘진서’라 하여 높은 일은 크게 잘못된 일입니다.

세종 대왕은 이렇게 애써 만든 훈민정음으로 노래도 짓고 책도 펴냈습니다. 《용비어천가》와 《월인천강지곡》이 바로 그 것입니다.

《용비어천가》는 조선 왕조를 세운 태조를 비롯한 여섯 조상의 업적을 노래로 엮은 것입니다. 한글로 적은 것으로서는 가장 오래 된 책입니다.

그리고 《월인천강지곡》은 석가모니의 공덕을 기리는 노래를 한글로 엮은 것입니다.

이렇게 백성들에게 어진 정치를 널리 펼 대왕에게도 병이 찾아왔습니다. 중풍을 앓기 시작하여 1450년 2월 17일 59살의 아까운 나이에 눈을 감고만 것입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온 나라의 백성들이 친아버지를 여윈 것보다도 더 슬퍼하였습니다.

세종 대왕의 유해는 경기도 광주의 대모산에 모셔졌다가 그 뒤 여주 영릉으로 옮겨졌습니다.

세종 대왕이 다스리던 32년 동안은 역사상 가장 찬란한 문화를 꽃 피운 황금기였습니다. 우리의 자랑스런 ‘한글’과 함께, 그의 얼은 겨레의 가슴 깊이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词 语

까다롭다 (形)

挑剔, 乖僻

뜻풀이 (词组)

解释

꼬박 (副)

整整, 一直

벼슬하다 (动)

做官

양반집 (名)

贵族家, 两班家

도령 (名)

公子, 少爷

한결같이 (副)	一致, 共同
널리 (副)	广泛, 普遍
수두룩하다 (形)	很多, 多得很
두루 (副)	一一地, 大致, 大体上
깨닫다 (动)	认识, 理解, 领会
착수하다 (动)	着手, 开始动手
미처 (副)	来不及
맞대다 (动)	面对面
흉내내다 (动)	学样, 照葫芦画瓢
독창적 (名)	独创性
눈병 (名)	眼病
때로 (副)	有时
끼니 (名)	饭, 顿饭
거르다 (动)	隔, 跳过
게을리하다 (动)	懒懒散散的
결심 (名)	决心
굳다 (形)	坚持, 硬, 坚固
피땀 (名)	血汗
피땀어리다 (形)	辛勤
거듭하다 (动)	一再, 反复, 重复
근래 (名)	近来
으뜸 (名)	第一
책머리 (名)	序言
안타깝다 (形)	心焦, 焦急
암글 (名)	雌文, 雌字 (含贬意)
엿신여기다 (动)	轻视, 小看
석가모니 (名)	释迦牟尼
어지다 (形)	仁慈
태조 (名)	太祖
월인천강지곡 (名)	月印千江之曲

용비어천가 (名)

龙飞御天歌

친어버이 (名)

亲生父亲

다스리다 (动)

治理, 掌管

겨레 (名)

同胞, 同族

令人骄傲的我们的文字 训民正音

古时候, 国家里还没有正确书写自己语言的文字, 就借用邻邦中国的汉字。但是汉字字数多、形态也太复杂, 字义解释难, 写起来麻烦, 用起来十分不便。

“哎哟, 学了整整一年只能识别这么几个字, 真是累死啦!”

“就是嘛, 汉字只能是那些当官的、做学问的、还有两班家的公子们用的, 对我们这样的平民来说那只是画中之饼啊, 不适合我们平民使用。”

百姓们都这样哀声叹道。

在老百姓中有很多人是一辈子没有读过或写过字, 有很多人连自己的名字都写不清楚。

“我得研究一下能够轻而易举地读写文字的方法。”

新罗时期, 有个叫薛聪的学者研究出叫吏头的文字。但是它不够优秀没能流传良久。吏头只不过是借用汉字的音和韵, 书写我国语言的发音。所以, 实际上没有多少用处。

世宗大王深感用复杂的汉字和吏头是无法教授百姓识字。

“会说话的百姓竟然没有能书写的文字, 这不就是瞪眼瞎吗。这多么不方便又是多么耻辱的事情啊。不行, 要造出所有百姓都能书写的我国的文字。”

为这事大王朝思暮想。

大王指使集贤殿学士们研究国体字, 且自己也亲自着手研究。

学士们求来《蒙古韵略》、《洪武正音》等书籍查阅。这些书记载中国的学者们研究关于音韵的内容。

“中国的汉字是表意的像形文字, 学起来难。我国文字应以表音为主的音标文字吧。”

听到世宗大王的这番话，学士们都惊讶不已。因为这是他们当中谁都没想到的。

于是大王就在景福宫内设立研究本国文字的官厅——‘正音局’。并叫郑麟趾、成三问、申叔舟，朴彭年、崔恒、李垲、李善老等学者们在这里专心着手研究。

世宗大王跟学者们一道面对面地坐着为研究国文字倾注了全部心血。

“新创制的文字应是在世界上最好的，是不模仿他国的文字，一定要有独创意识。并且要容易读写。总之，要让百姓学得容易。”

大王的梦想果然远大而新颖，学者们领会了此意全身心地投入到研究。

集贤殿学者们无论是中文，还是印度、蒙古、契丹的文字都加以调查。成三问为了用正确的中国汉字音来纠正错误的标记，曾13次去过中国辽东地区。

世宗大王与集贤殿学士们在一起，还经常废寝忘食地专心研究，因劳累过度患了眼病。

可是以崔万里为首的几位学者却说：“有中文字，为什么浪费时间和经费要造新的文字？”

“是啊，我们研究新文字的事情一旦传到明朝的话，说不定会有麻烦呢。”持反对意见源于从古以来侍奉中国大陆的坏习惯。

“不要说这种话！我们百姓要自己的文字，何必看明朝的眼色呢？”

世宗大王指责崔万里等人，大王的决心也越来越坚定。

“我非要造出本国的文字不可。”

世宗大王与集贤殿学者们一道刻苦钻研，日复一日，年复一年，在直到1443年世宗25年12月，训民正音28字终于诞生。

辅音（声母）有17字（ㄱ ㅋ ㆁ ㄷ ㅌ ㄴ ㄹ ㅍ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ㅡ ㅟ ㅢ）

元音（韵母）有11字（ㅏ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ㅡ ㅟ ㅢ）

大王把新出台的国文字取名为“训民正音”，意思是“教诲百姓的正确的字音”。

现在叫“韩文”的这一名称是，近来甲午更张以后由周时经先生提起并广泛推广使用的。韩字的“韩”是“大、第一、正”的意思，所以说韩字与训民正音是同样的意思。

“不要急于发布，经多次试验，需要纠正之处再纠正之后向百姓发布。”

为此，世宗大王试验三年后，于1446年阴历9月上旬，正式发表训民正音。世宗大王把训民正音这一国文公布于世时，在书的序言中写道：

“我国的语言不同于中国，用中国的文字——汉字来不能相互沟通。所以没学过汉字的百姓，因无记其语言的文字，表达不出自己的意思。对此寡人焦急万分，便造出28个新字，希望能容易为人所接受，方便于生活。

过去有些愚蠢的学者，把这么优秀的我国文字，讽刺为“谚文”或者“雌文”，无不是一种耻辱。惟独把中国的汉字奉承为“珍书”是错误的。

世宗大王就用这训民正音既编歌，又编书。《龙飞御天歌》、《月印千江之曲》就是。《龙飞御天歌》是赞扬以建立朝鲜王朝的太祖为首六位祖先业绩的歌曲，是以韩文记录的历史最悠久的书。《月印千江之曲》是赞美释迦牟尼功德的韩文歌曲。

为百姓辛劳的仁慈的世宗大王不幸病魔缠身，他患中风，于1450年2月17日离开了人世，享年54岁。

噩耗一传开，全国百姓沉浸在失去亲生父亲般的悲痛之中。

世宗大王的遗体安葬在京畿道光州大母山后又移葬在丽洲永陵。

世宗大王治国32年间，是我国历史上文化最灿烂的黄金时期。他的灵魂与我们骄傲的“韩字”一起永远活在我们民族的心中。

제2과 거북선의 눈부신 활약

이 성 관

이순신의 함대는 승리의 깃발을 날리며 영등포(지금의 거제군 장목면)로 뱃머리를 돌렸습니다.

그 날 밤 왜선 5척이 지나간다는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놈들을 놓치지 말고 끝까지 추격하라.”

이순신은 도망하는 왜선들을 맹렬히 뒤쫓아 합포(지금의 창원군 내서면)에서 모두 쳐부수었습니다. 그 다음 날 새벽에는 적진포(지금의 통영군 광도면)에서 왜선 13척을 무찔렀습니다.

이 때까지 이순신이 승리를 거둔 싸움을 가리켜 ‘옥포 해전’이라 부릅니다. 이 해전이야말로 절망에 빠진 백성들에게 희망을 안겨 준 뜻 깊은 싸움이었습니다.

이순신의 함대는 여수 본영으로 되돌아왔습니다. 병사들에게 휴식을 시키고 전함을 정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느닷없이 이순신 앞에 머리가 허영게 센 노인이 긴 수염을 날리며 나타났습니다.

“지금 이 어느 때라고 한가하게 이러고 있느냐?”

노인은 이순신을 노려보며 꾸짖듯 말했습니다.

“한가한 것이 아니라, 싸울 준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내일은 노량으로 떠날 작정입니다.”

“뭣이, 내일이라고? 지금 당장 떠나거라!”

노인은 눈을 부라리며 소리쳤습니다.

이순신은 깜짝 놀라 눈을 번쩍 떴습니다. 꿈이었습니다.